

28. 빈손으로 떠난 단양군수(48세)



퇴계의 넷째 형 온계이다.

서울이 싫다고
단양으로 내려 간
동생이 부럽구나!



조정에서 승진을 거론했으나

승진은
안해도 좋으니
지방으로
보내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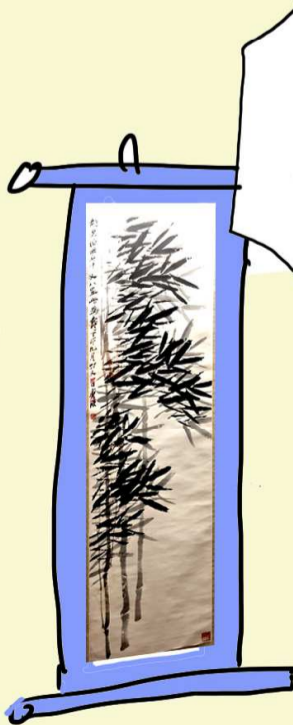


충청도관찰사로 발령이 났다

형님도
충청도로
가시는구나!



같은 도에서 형은 관찰사
동생은 군수가 되었으니
동생인 내가 보따리 쌀
생각을 해야겠지?



아니나 다를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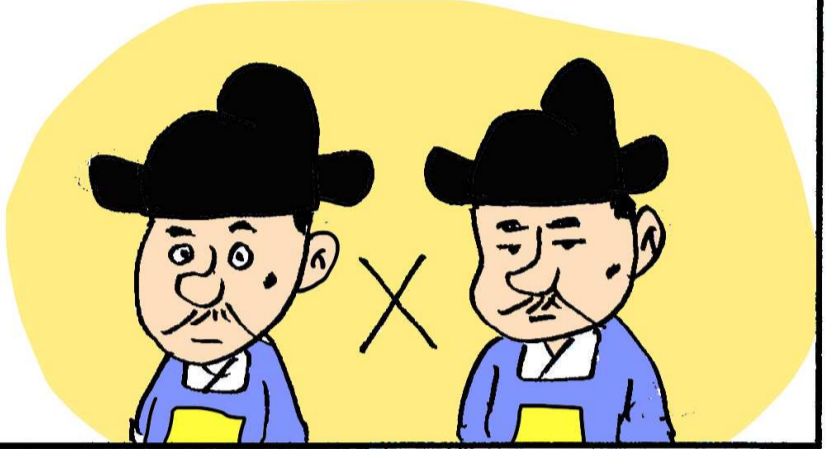
퇴계를 경상도
풍기군수로
발령하노라!

예으잇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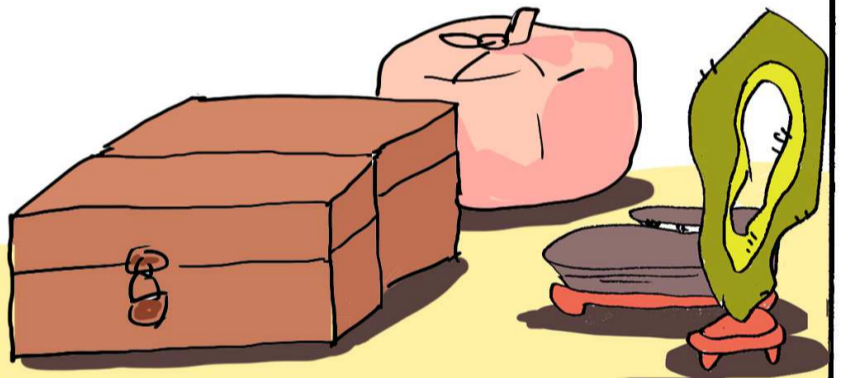
당시에는 상피제도가 있어서 인척이 같은
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.

*상피제도 : 가까운 친척이나
친족이 같은 지역에
관리로 취임하지
못하는 제도.



단양을 떠날 때

군수를 지낸 퇴계의 짐이 고작 책 상자
두개, 옷 보따리 하나 그리고 수석 두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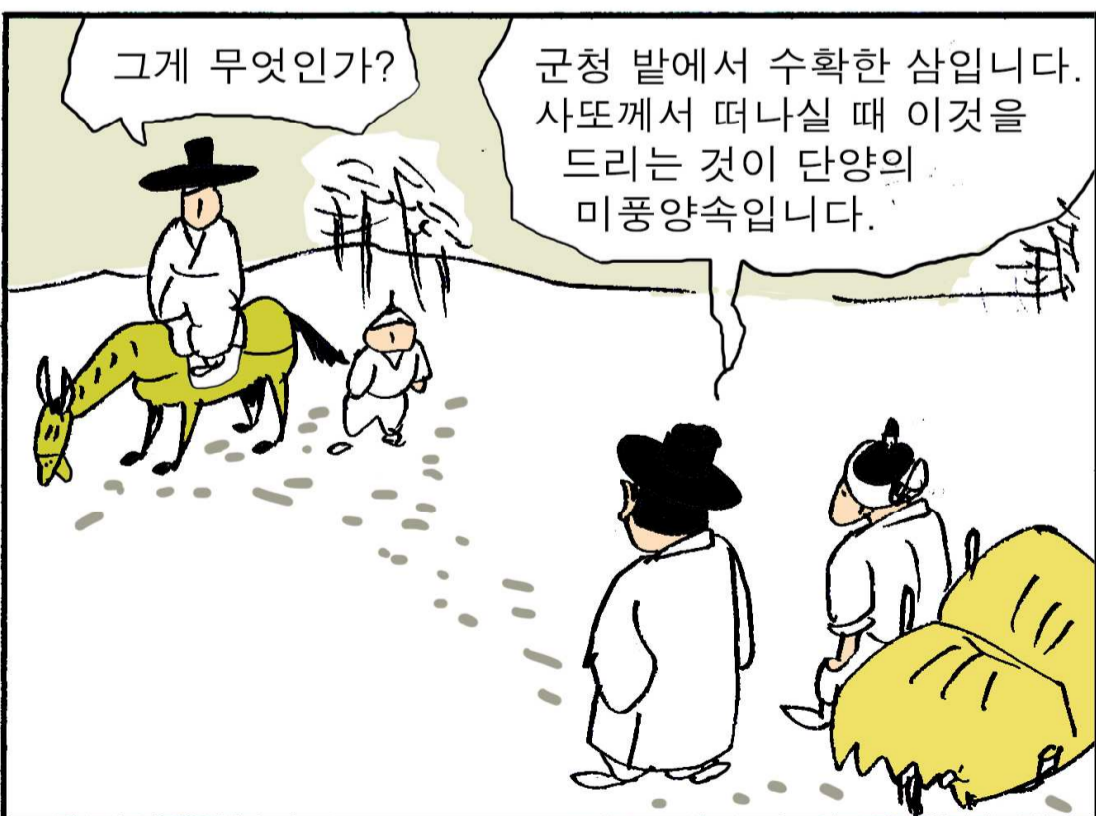


그런데...

헉헉!

헉헉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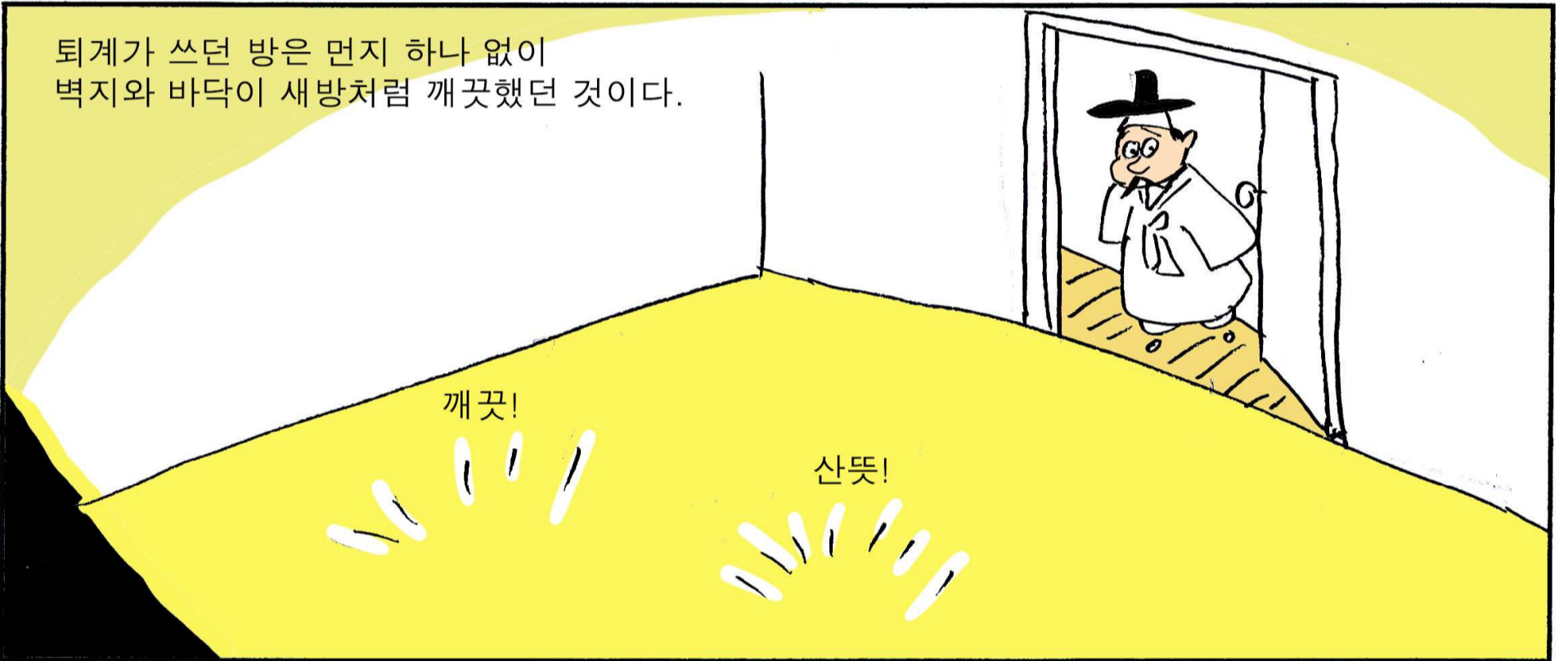




아이고야!



세상에 이런 일이!



퇴계가 쓰던 방은 먼지 하나 없이 벽지와 바닥이 새방처럼 깨끗했던 것이다.

깨끗!

산뜻!



다시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을 깨끗히 쓰셨어.



구관이 명관이라더니 정말 전 군수님은 모든 것에 빈틈이 없고 청렴결백한 분이셨구나.

또 감동, 감동!